

(주)유한양행 오창공장 전 직원이 방화관리자?



“가장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게 도움을 주자”는 창립자, 유일한 박사의 창업정신으로 설립된 (주)유한양행이 군포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초 오창에 21세기형 공장을 새롭게 준공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유한양행 오창공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김상희 방화관리자를 만나 유한양행만의 특별한 방화관리의 아이디어 및 노하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글 | 이미숙 협회 경영기획부 대리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주)유한양행

故 유일한 박사는 일제 강점기 시절 “건 강한 국민만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

는 신념 아래 민족의 질병 퇴치를 위해 꼭 필

요한 양질의 의약품을 생산하고자 1926년 유한

양행(대표이사 사장 차중근)을 설립하였다. 당시 ‘한 그루의 큰 버드나무처럼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끈질기게 무성하게 대상하기를 바란다.’는 뜻이 담긴 ‘버들표’를 유한의 마크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버들표’는 지금까지도 유한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한양행은 지난 80여 년간 ‘고객 중시, 종업원 중시, 사회적 책임 중시’의 기업이념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신제품을 개발 생산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약업체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유한양행의 노력을 인정받아 1985년에는 업계 최초로 KGMP 적격업체로 지정받았으며, 이후 ISO14001 인증, 가장 신뢰받는 기업상, 기업경영대상, 최고경영대상 제약부문 대상, 대한민국 신약개발대상, 은탑 산업훈장을 비롯한 각종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충북 오창과학단지 내에 위치한 오창공장은 부지면적 87,000㎡에 주요 건물 8개동 및 부속건물 8개동에서 빼



꼼씨를 비롯한 230여 종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오창공장은 주사제, 시럽제, 고형제 등 제제별로 분리 생산하는 현대화·자동화된 제조시설과 엄격한 공정관리로 의약품 제조공정상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인 착오를 없애고 오염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전성이 높은 고품질의 의약품 제조가 가능하며, 준공 당시 식약청으로부터 KGMP(Korea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격공장으로 지정받기도 하였다.

분야별 유기적으로 연관된 방화관리 시스템

오창공장은 KPI(Key Performance Index) 평가제도 및 인증평가제도, 안전관리규정 운영, 6시그마 등을 운영하여 경영관리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으며, GMP위원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소방대책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제도를 운영하여 업무의 적정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중 소방대책위원회에서(위원장 : 공장장)는 매 분기별로 모여 소방시설의 개선사항을 심의, 결정, 집행하는 임무를 하고 있다. 여기서 특이할 점은 각 위원회에 모두 방화 및 안전관리자가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김

상회 방화관리자는 “안전은 전 분야에 걸쳐 해당되기 때문에 방화 및 안전관리자의 폭넓은 활동을 통해 방화관리 시스템이 공장 내 전 분야에 걸쳐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고, 전 직원들의 의식 속에 안전의식이 깊게 자리할 수 있다.”고 한다.

화재예방활동에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 이끌어내

유한양행 오창공장은 건물 각 구역별로 9개 팀의 자위소방대를 구성하여 화재 시 3분 이내로 빠르게 대응하고 효과적인 소방훈련 및 소방기술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이 직접 일일/주간/월간/분기/반기별로 점검을 실시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점검하는 직원들도 매번 변경하여 자칫 매너리즘에 빠져 소홀해질 수 있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소화기·소화전의 관리자 실명제를 도입하여 직원들은 자기가 맡은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으며, 각 팀별로 방화·화기 책임자를 임명하여 팀별 소방업무를 총체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소방시설의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연2회 각 자위소방대별로 소방경연대회를 실시하고 우수팀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매년 소방·안전관리/품질관리/생산성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발휘한 2인을 선정하여 가족 해외여행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은 관리감독자 안전위탁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유한양행 오창공장의 직원들은 화재예방활동을 단순히 방화관리자 등 관련자만 하는 업무가 아닌 전 직원이 해야 하는 업무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한편 유한양행 오창공장은 공장 내부는 물론 야외 역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직원들의 금연을 위해 금연보조금도 지급하여, 직원들의 건강 향상은 물론 화재 발생 가능성도 대폭 줄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오창공장은 1999년 2월 19일 군포공장 당시부터 실시해 온 무재해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현재 무재해 2,300여 일로 7배수를 달성하였으며 8배수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맺음말

유한양행 오창공장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직원들이 모두 화재 및 안전분야에서 각자의 몫을 담당하며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는 “직원들이 화재 안전 관리에 무관심하고 남의 일이라고만 여긴다.”라는 애로사항을 제기하는 많은 기업체의 방화관리자들과 경영진들이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인 듯싶다. “작은 화재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 생산품이 미세물질에 오염될 가능성이 1%라도 생기므로 고객의 안전을 위해 그 당시 생산되고 있던 제품의 전량을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김상희 방화관리자의 말에서 깊은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유한양행이 무한대로 무재해를 달성하고, 지속적인 신약 개발을 통해 세계 속의 제약회사로 뻗어나가기를 바라며 탐방을 마쳤다. ☺



김상희 방화관리자



소방안전상 시상



방재실 전경



공장 내부



소방훈련장면

